

# 「한국교회사학회지」(1979년~2019년)에 게재된 중세교회사 연구의 결산과 전망

손은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중세교회사 연구 40년사를 결산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 시도이다. 본고에서 중세교회사 범위에 포함시킨 연대는 통상적으로 ‘중세 1000년’이라 일컬어지는 500년에서 1500년대이다.

한국교회사학회지가 1966년에 창립된 이래로 학회지가 빛을 보기까지는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1979년 6월 드디어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중세교회사 연구 논문은 그 후로도 다시 13년이 지난 199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학회지에 수록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10년간 한 편의 논문도 없다가 2002년 두 편이 동시에 게재되었고, 그 후 2019년 8월호까지 꾸준

하게 논문들이 발표되어 모두 34편이 학회지에 실렸다. 첫 논문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33편이 발표되었으니 1년에 평균 1.94편, 채 2편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중세교회사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양적 지표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 연구 현황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연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양중세사 연구』 혹은 『중세철학』 등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천년에 걸친 중세교회사라는 광범위한 연구 범위에 비할 때 국내 학계의 연구가 극히 빈약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서양 중세교회사를 다루는 것은 라틴어, 사료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수 세기 간 축적되어 온 두터운 연구사 등의 높은 장벽 앞에 서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연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교회사학회지』 40년 역사에서 중세교회사 연구에 할애된 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중세 교회 연구사 분석 논문을 의뢰받은 필자는 이 논문들 전체를 일일이 한 편씩 애정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읽었다. 그러는 동안 필자는, 1997년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 가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적어냈던 연구 동기가 생각났다. 그중 하나가 한국 학계에서 연구 공백이 큰 서양 중세사연구 공백을 메꾸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기억이 되살아나자 황무지와 같은 국내 중세교회사 분야에 용감하게 뛰어든 연구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일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일로 변했다. 이 아이들은 비록 걸음이 서툴어도 대견했고 큰 기쁨을 주었다. 개중에는 상당히 성장한 아이들과 보석 같은 친구들도 발견할 수 있어서 34편의 논문 읽기는 어느덧 보물찾기 놀이가 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쫓기며 34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즐거운 놀이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필자는 『한국교회사학회지』의 중

세교회사 연구 40년사 첫 번째 역사서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논문 전체에 대한 몇 가지 양적 지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대별 혹은 주제별 분류도 가능하겠지만, 중세교회사 천년을 다룬 33편의 논문을 가지고 연대별 분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따라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연구내용과 주제별 연구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양적 지표와 질적 평가를 통해 『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된 중세교회사 연구 동향과 추이를 분석한 후에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중세교회사 연구의 양적 지표 분석

『한국교회사학회지』는 1979년 6월 창간호부터 2019년 8월까지 모두 53권이 출간되었다. 서평과 발간사를 제외한 논문은 총 425편이며, 이 중에서 중세교회사와 관련된 연구는 34편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7개의 분야로 분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중세사연구는 평균에 해당하는 14%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우선 중세교회사 연구 논문 전체를 연도별 그리고 저자별 논문 편수와 주제별 연구 분포를 도표로 제시하고, 양적 지표의 함의를 해석할 것이다.

&lt;표 1&gt; 연도별 중세 교회사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199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논문편수	1	2	1	4	1	3	5	2
연 도	2009	2010	2011	2013	2015	2016	2017	
논문편수	4	4	1	3	1	1	1	

이 도표는 1992년 첫 논문이 선을 보인 후 10년간은 중세사연구논문의 공백 기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로 해마다 1편에서 4편이 게재되었지만, 2012년, 2018년, 그리고 2019년(12월호는 미정)도 0편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이 이 기간에 중세교회사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이 다른 학술지에 얼마든지 논문을 게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한 두 예만 들면, 2012년에는 『종교와 문화』에 「무슬림의 그리스도교 비판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 -『신앙의 근거들』을 중심으로」를, 2018년에는 『중세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론」을 게재했다.

&lt;표 2&gt; 저자별 중세교회사 연구 논문 편수

저 자	강치원	권진호	김봉수	김선영	김수천	김주한	남성현
논문편수	2	1	1	1	1	1	1
저 자	박정흠	서원모	서종원	손은실	염창선	유지황	이양호
논문편수	1	3	1	3	1	3	1
저 자	이은선	이은재	이정구	이준섭	이충범	최종원	황정욱
논문편수	4	1	1	3	2	1	1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학회지에 중세 관련 논문을 쓴 저자는 모두 21명이다. 그러나 이것도 국내 중세교회사 연구자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중세여성 신비가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 1342 – 1416)을 연구한 양정호의 논문은 『신학사상』 혹은 『장신논단』과 같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게다가 일반 중세사학자들도 얼마든지 교회사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다. 이 점은 중세사회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21명 모두가 중세사 전문가는 아니다. 고대 전문가(서원모, 염창선)와 종교개혁전문가(김선영, 김주한, 이양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항은 각 저자의 중세교회사 연구 전체 논문 편수 가운데 일부만이 『한국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손은실의 경우, 2007년부터 국내 학술지에 중세교회사 관련 논문 19편(토마스 아퀴나스 12편)을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 3편만 이 학술지에 투고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 주제별 연구 분포

	주제	논문 편수
1	토마스 아퀴나스	6
2	수도원 영성과 수도생활	5
3	중세신비주의자와 여성신비가	8
4	가난문제와 복음적 가난	3
5	장애인	1
6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대응	1
7	비잔틴	4
8	전통종교개혁의 선구자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원천	4
9	기타	2

필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중세교회사 연구내용을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략 9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분류는 매우 엄밀하게 행해진 것은 아니다. 가령 한 논문이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

우 양쪽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보다 우세한 주제로 분류했다. 예컨대 손은실의 논문(「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 - 토마스 아퀴나스, 성 루이 9세,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은 이미 제목부터 본고의 주제 분류에 따르면 세 항목, 즉 ‘장애인’,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여성신비가’를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인 범주로 분류했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개 주제별 연구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특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한국교회사학회지』 발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캐내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I. 주제별 연구 현황과 질적 평가

위에서 제시한 9개의 주제 분류에 따라 각 주제에 속하는 논문들을 차례대로 간략히 소개하고 주제별 연구 현황을 평가할 것이다.

#### 1.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6편)

1	5 (1992/6)	이양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문」
2	11 (2002/6)	유지황	「이성과 계시 합일의 도덕: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 개념에 관한 비판적 이해」,
3	17 (2005/12)	유지황	「인식과 자유 선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
4	18 (2006/6)	유지황	「신학적 철학인가 철학적 신학인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관계 이해를 중심으로」,
5	23 (2008/12)	이은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의 방법론」
6	42 (2015/12)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룬 논문은 6편이다. 우선 학회지에 가장 처음 발표된 논문을 비롯하여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분야가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가 중세 신학자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학회지에 게재된 중세분야 첫 논문인 이양호의 논문(「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론」)은 『신학대전』 1부 1문에서 23문을 연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론을 소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토마스의 신학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종합하고, 단순한 자연신학자가 아니라 은총의 필요성을 강조한 은총의 신학자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유지황은 토마스 연구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번째 논문(「이성과 계시 합일의 도덕: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 개념에 관한 비판적 이해」)은 『신학대전』 2부의 1부 90문에서 108문에 나오는 토마스의 법 이론을 소개하고, 토마스의 법체계는 신의 계시 즉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앞의 이양호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은 국내에서 토마스 연구의 개척 단계에서 나온 연구로서 라틴어 원문이 아닌 영어 번역문으로 텍스트를 소화하고 선행 연구사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편이다. 2차 문헌 인용도 논문출판 당시 최신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십 년 전에 나온 과거 연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유지황의 두 번째 논문(『인식과 자유 선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은 토마스 사상에 나타난 이성과 의지의 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이 논문은 논지 전개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라틴어 ‘consilium’을 ‘분별’<sup>1)</sup>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 단어는 ‘숙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고, 토마스는 이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sup>2)</sup> 유지황의 세 번째 논문(「신학적 철학인가 철학적 신학인가?: 토마스

---

1) 분별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discretio*이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관계 이해를 중심으로)은 “아퀴나스의 학문적 작업이 신학적 철학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임”(157쪽)을, 다시 말해 이성과 계시의 조화를 통해 철학적 신학을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앞의 이양호와 유지황의 네 논문이 『신학대전』의 영어 번역 텍스트를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한 텍스트 내용을 소개할 뿐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거나 빈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은선의 논문(「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의 방법론」)은 국내외 선행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특히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저명한 해외 선행 연구자인 질 에머리(Gilles Emery)의 단행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다. 독창성을 가진 후속 연구를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토마스과 동시대 신학자인 보나벤투라(Bonaventura)를 ‘보나벤추라’라고 표기하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손은실의 논문(「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를 중심으로」)은 6편의 논문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라틴어 원전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다. 이 글은 토마스의 정의론이 무한한 재산 축적을 정의로운 것으로 보는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소유의 윤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밝힌다. 사적 소유권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결핍된 빈민의 자기보존의 자연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이 토마스의 소유권 이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소유권에 관련된 토마스의 정의론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 문제를 윤리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sup>3)</sup>

2) “인간은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해 숙고한다. 의사는 병을 치료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아니며 연설가는 설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도 아니다. 목적을 설정한 다음,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달성되는 것으로 보이면 어떤 것을 통해 가장 쉽게 훌륭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 숙고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12b 11-17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14, 3, c.



위에서 소개한 논문 6편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방대한 라틴어 작품과 수 세기 간의 두터운 연구사를 가진 신학자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국내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잘 보여준다. 『신학대전』을 영어 번역본으로 씌름한 초창기 연구자들에 이어, 해외의 중요한 선행 연구를 번역 소개하는 것으로 나아간 다음, 마침내 라틴어 원전과 선행 연구사 연구와 최신 2차 문헌까지 섭렵하고 소개하는 연구로까지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논문 6편이 국내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 현황을 다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극히 미미함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자인 손은실의 경우 2007년 이래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 논문 12편 가운데 단지 1편만 『교회사학회지』에 투고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 2. 수도원 영성과 수도생활 연구(5편)

1	15 (2004/12)	강치원	「귀고 2세(Guigo II)의 수도승들의 사다리에 나타난 Lectio Divina」
2	15 (2004/12)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에 관한 연구」
3	20 (2007/6)	강치원	「성 빅토르의 휴고(Hugo von St. Victor)에게 있어서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Didascalicon de studio legendi를 중심으로」,
4	21 (2007/12)	남성현	「관상기도 전통에 대한 소고」
5	26 (2010/6)	이은재	「중세의 자연이해와 수도원 영성-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 3) “현대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비판가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부도덕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자본주의가 부도덕하다고 말하면서 “도덕성을 가진 자본주의가 가능하다”(D. W. Haslett, *Capitalism with Mor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96, p. 264.)고 주장한다. 도덕성을 가진 자본주의 모델을 모색할 때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접근한 토마스의 관점이 매우 유용함을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밝혔다.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가격(iustum pretium)론에 대한 재해석”, 『西洋中世史研究』 28(2011), 129-158.

중세수도원 영성과 수도생활 관련 논문은 5편이다. 강치원의 논문(「귀고 2세(Guigo II)의 수도승들의 사다리에 나타난 *Lectio Divina*」)은 종교개혁 신학 전통에서 중세 영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루터가 신학공부 방법으로 제시한 기도-묵상-시험(*oratio-meditatio-tentatio*)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12세기에서 15세기 수도 영성 전통을 추적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그랑드 샤르트루즈(*Grande Chartreuse*)의 9대 원장인 귀고 2세(*Guigo II*, d. 1188)의 *Scala Claustralium*에 나오는 *lectio divina*의 네 계단, 즉 영혼의 영적인 네 단계인 독서-묵상-기도-관상(*lectio-meditatio-oratio-contemplatio*)을 소개한다. 김봉수의 논문(「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에 관한 연구」)은 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 1006 혹은 1007-1072)의 삶을 이끈 원리가 은둔적 수도원 이념이었다는 것과 그의 수도원 개혁과 교회개혁의 성격을 결정지은 것이 수도 생활 헌신에 있음을 밝힌다. ‘다미아니의 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교단’으로 번역된 영어 표현 ‘religious order’는 수도회를 의미한다. ‘교단’이라는 번역은 국내 일반사학계에서도 흔히 발견되지만, ‘수도회’가 보다 정확한 번역이다. 김봉수는 페트루스 다미아니에 관한 논문을 「개혁논총」에도 두 편 게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치원의 논문(「성 빅토르의 휴고(*Hugo von St. Victor*)에게 있어서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Didascalicon de studio legendi*」를 중심으로)은 위에 소개한 그의 논문처럼 수도원의 *lectio divina*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네 단계(*quatuor spirituales gradus*)를 다룬다. 앞의 논문에서 귀고의 글을 연구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12세기 파리의 생 빅토르 수도원에서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회 사제인 위그 드 생 빅토르(*Hugues de Saint Victor*)의 책 *Didascalicon*에 나타난 네 단계를 연구한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 마디로 독서법을 설명하는 *Didascalicon* 을 저자는 『신학수업 입문서』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제목

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책 내용에 대한 해석이다. 『독서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책에서는 네 단계라는 제목 아래 ‘독서-묵상-기도-실천적 행위-관상’의 순서로 실천적 행위가 들어가는 점이 독특함을 저자는 밝힌다. 남성현의 「관상기도 전통에 대한 소고」는 한국 교회에서 관상기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관상기도의 전통을 연구한다. 이은재의 「중세의 자연이해와 수도원 영성-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는 제목만 얼핏 보면, 자연관과 수도원 영성 두 개의 주제를 병렬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중세 수도원의 역사적 배경과 중세 수도사들의 생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다. 자연관은 수도원의 배경 부분에서 조금 다루어진다.

위에서 분석한 다섯 논문에서 다뤄진 주제는 세 가지 즉, 수도 생활에 대한 개관,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전통, 교회개혁의 원동력이 된 수도 생활로 요약된다. 6세기 베네딕투스 수도회에서부터 13세기 탁발수도회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역사와 수도원 개혁의 역사를 고려할 때, 아직 연구의 미답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중세 신비주의와 여성 신비가 연구 현황(5+3편)

우선 중세 신비주의와 여성 신비가를 구분한 이유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중세 시대의 ‘제 4신분’으로 불리는 여성들의 신비주의와 남성 신비가들의 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따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신비가를 다룬 연구와 여성 신비가 연구 현황을 차례로 서술한다.

## 1) 중세 신비주의 연구 현황

1	24 (2009/6)	권진호	「버나드의 ‘아가서 설교’와 신비주의」
2	25 (2009/12)	이준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설교들의 중심 주제로서 ‘영혼 안에 하느님의 탄생(Gottesgeburt) in der Seele’: 영원한 탄생(Ewige Geburt)’에 관한 설교들을 중심으로」
3	27 (2010/12)	이준섭	「삶의 스승과 실천적인 신비주의자로서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 - ‘관상하는 삶(Vita contemplativa)과 행동하는 삶의 일치성(Vita activa)’을 중심으로」
4	28 (2011/5)	서종원	「위그 드 생-빅토르의 『노아 방주』에 나타난 영적 상승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
5	36 (2013/12)	이준섭	「클레르보 드 베르나르(Bernhardus de Clairvaux)의 신비 사상 이해를 위한 한 시도 - contemplativa vita et activa vita의 상호성」

학회지에 발표된 중세 신비주의 연구 논문은 여성 신비가를 제외하고 5편이다. 수많은 중세 신비가들 가운데 네 명의 신비가, 즉 위그 드 생 빅토르(Hugues de Saint-Victor, 1096-1141),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c.1260-c.1328)와 그의 제자 요하네스 타울러(Joannes Tauler, 1300?-1361)에 대한 연구이다.

5편의 논문을 중세 신비가들의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그 드 생 빅토르의 신비주의를 다룬 서종원의 논문은 그의 신비신학을 대표하는 작품인 『노아 방주』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노아의 방주가 표상하는 영적인 의미와 위그의 신비사상이 추구하는 근본적 지향점을 규명한다. 이 논문은 위그가 중세의 위(僞) 디오니시오스 수용사에서 감정적(affective) 해석의 단초를 놓은 인물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위그의 해석은 동방신학의 신비사상에서 강조된 아나고기아 차원보다 사랑의 우위성을 강조함을 잘 보여준다. 원전과 2차 문헌에 대한 탄탄한 연구가 돋보이는 논문이다.

베르나르 드 끌레르보에 대한 연구가 두 편 발표되었다. 먼저 제목에서 영어 발음으로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권진호의 논문은 베르나르의 신비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유명한 『아가서 설교』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아가서 해석사를 소개하고 베르나르의 『아가서 설교』를 분석한다.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를 잘 소개하며, 베르나르의 『아가서 설교』에 대한 충실한 개관을 담고 있다. 권진호의 논문이 발표되고 4년 후에 다시 베르나르를 연구한 이준섭의 논문은 베르나르의 수도영성에서 활동과 관상의 조화로운 삶에 주목한다. 비록 주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같은 베르나르에 대한 선행 연구인 권진호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나머지 두 논문도 이준섭의 글로 두 명의 라인강 유역의 신비가를 다룬다. 먼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를 다룬 논문은 에크하르트의 원전을 연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룬 국내외 귀중한 선행 연구인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분도 2003)을 참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준섭의 논문(「삶의 스승과 실천적인 신비주의자로서 요하네스 타올러(Johannes Tauler) -‘관상하는 삶(Vita contemplativa)과 행동하는 삶의 일치성(Vita activa)’을 중심으로」)은 학문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알려진 라인강 유역의 세 신비가 가운데서 타올러에 나타나는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의 일치를 다루고 있다.

## 2) 중세여성신비가 연구현황(3편)

1	19 (2006/12)	이충범	「13세기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종교적 주체에 관한 고찰: Mechthild von Magdeburg를 중심으로」
2	20 (2007/6)	서원모	「스웨덴의 비르기타-자의식과 교황에 대한 계시」
3	21 (2007/12)	이충범	「베긴(Beguine) 여성들과 그 공동체가 수행한 전쟁 지도 작법에 관하여」

중세 여성 신비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세 편이다. 이충범의 논문은 당대 종교적 환경이 어떤 담론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탐구하고, 13세기의 ‘스스로 고통 받는 여성’이라는 여성 주체는 그 시대의 종교문화적 담론구조 내에서 생산된 주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푸코와 들뢰즈 등 프랑스 철학자들의 담론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다만 신비가들의 경험은 단지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특정 시대의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원모의 「스웨덴의 비르기타 - 자의식과 교황에 대한 계시」는 중세 교회의 여성 가운데 교회와 정치 현실에 적극 참여한 사례인 스웨덴의 성 비르기타(St. Birgitta of Sweden, c.1303-1373)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성 비르기타야말로 중세 교회 안에 존재했던 카리스마적 권위와 제도적 권위 가운데서 후자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중세 여성이 전자에 참여한 탁월한 사례임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카리스마적 권위’는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역사 발굴 분석에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한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르기타의 신비경험과 카리스마적 권위는 비슷한 시기의 여성인 시에나의 가타리나(1347-1380)와 유사한 점이 많아, 후속 연구로 둘을 비교하는 논문도 기대할만하다.

#### 4. 가난 문제와 복음적 가난 연구 현황

1	21 (2007/12)	김주한	「가난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호정책-중세 후기 기독교 사회복지정책」
2	24 (2009/6)	황정욱	「중세 초기의 십일조와 가난한 자의 문제」
3	25 (2009/12)	손은실	「중세시대의 복음주의-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12세기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은 부와 풍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닥쳐 온 빈부 격차의 심화 앞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살았던 복음적 가난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도적 삶을 추구했고, 가난 문제에 특별한 감수성을 가졌다. 중세의 가난 문제와 관련된 논문은 3편이 있다.

김주한의 논문은 중세 유럽사회에서 교회가 가난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중세시대 가난 개념을 소개한다. 라이헤스버그의 게로흐(Gerhoh of Reichersberg, 1093-1169)는 나사로의 비자발적 가난과 사도들의 자발적 가난을 구분한다. 가난에 대한 교회의 대응도 가난을 영성화하는 것과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가난에 대한 영적 접근과 사회문제로서의 접근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는 중세교회가 직면한 과제였음을 짐작할 있다. 중세 가난 이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논문이다. 황정욱의 논문 「중세 초기의 십일조와 가난한 자의 문제」는 중세 초기의 십일조 문제를 교회의 빈민 구제와 연결하여 다루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 문제, 빈민 구제, 십일조를 병렬적으로 다루면서 자발적 현금이었던 십일조가 교회법으로 강제된 의무 사항이 됨으로써 종교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손은실의 논문은 12세기와 13세기에 ‘복음적 삶’(vita evangelica)을 말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된 세 가지 표

현4)을 통해 중세에 통용되던 복음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한 마디로 제자도(discipleship)로 요약될 수 있다.”<sup>5)</sup> 저자는 중세 복음주의의 특징이 제자도의 강조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오직 은혜로’만이 있을 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 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귀한 가르침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복음적 가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다룬 부분이다.

### 5. 장애인 연구 현황(1편)

1	35 (2013/9)	손은실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 - 토마스 아퀴나스, 성 루이 9세,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	-------------	-----	------------------------------------------------------

필자가 알기에 이 논문은 국내에서는 서양 중세 장애인 문제 연구의 효시이다. 이 논문은 중세 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1)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2) 장애인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3) 장애인은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4) 장애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중세 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5) 중세 장애인들의 삶과 중세 교회와 사회의 장애인 구호활동을 단편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세사회가 장애인을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는 푸코의 표현처럼 ‘사회적 배제’와 ‘영적인 재통합’을 결합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4) 세 가지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사도행전 4장 32절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형태 유지 2) 그리스도 따르기(sequela Christi) 3) 사도적 삶(vita apostolica).  
 5) 손은실, “중세시대의 복음주의-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5 (2009. 12), 68.



또한, 이 논문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인 연구로 현대의 장애 연구자들이 정리한 용어 정의와 장애 연구의 모델 그리고 중세의 장애 문제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여 후속 연구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의 참고 문헌도 후속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필자는 이 논문에 인용한 자료들을 장애 연구에 선구적인 나라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중앙도서관에서 수십 권의 장애 연구서를 훑어보고 선별하여 인용했다.

## 6.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연구 (1편)

1	45 (2016/12)	서원모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대응: 이슬람 문명권, 비잔티움, 라틴 그리스도교 세계의 비교」
---	--------------	-----	----------------------------------------------------

이 논문은 이슬람 등장(622년)에서 비잔티움의 멸망(1453년)까지 중세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과 라틴 기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문헌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세 권역 가운데 이슬람 세계에서 살던 그리스도인은 무슬림과 직접 접촉했기에 이슬람에 대해 가장 잘 알았고 이슬람의 도전에 맞서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고 종교 간 대화와 토론에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잘 규명한 흥미로운 연구이다. 중세시대 이슬람, 유대문화, 그리고 세 유일신교 간의 대화 연구는 해외에서는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약하다.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49-57쪽에 걸쳐 매우 충실한 참고 문헌도 소개하고 있어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7. 비잔틴 전통

1	13 (2003/12)	서원모	「헤지카즘 논쟁에 있어서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 해석」
2	27 (2010/12)	김수천	「성 시메온(St. Symeon the New Theologian)의 가르침에 나타난 신성의 빛의 의미」
3	27 (2010/12)	이정구	「8세기 성화상 논쟁의 시대적 요인」
4	47 (2017/8)	박정흠	「‘이미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8세기 성화상 논쟁의 발단원인 고찰」

비잔틴 관련 연구는 4편이다. 두 편은 비잔틴의 신비신학에 관한 연구이고, 나머지 두 편은 성화상 논쟁을 다룬다. 서원모의 논문은 비잔티움에서 1337년부터 10년간 일어난 헤지카즘을 둘러싼 발람과 팔라마스의 논쟁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방교회의 헤지카즘 전통을 공격한 발람과 이를 열렬히 옹호한 팔라마스의 입장을 위 디오니시오스의 부정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교한다. 발람은 디오니시오스의 신명론을 중심으로 긍정신학을 강조했다. 반면에 팔라마스는 디오니시오스를 수덕적, 신비적 전통에 따라 해석했다. 1차 문헌과 중요한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논문이다. 비록 해외 선행 연구 위에 새로운 독창적 발견을 첨가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비잔틴 신비신학의 중요한 전통을 충실하게 소개한 것은 독창적 후속 연구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수천의 논문은 동방 정교회에서 신학자로 불리는 세 명 가운데 신 신학자 성 시메온(St. Symeon the New Theologian, 949-1022)이 자신이 체험한 ‘신적인 빛’(Divine Light)에 대해 쓴 글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정구의 「8세기 성화상 논쟁의 시대적 요인」과 박정흠의 「‘이미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8세기 성화상 논쟁의 발단원인 고찰」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8세기 비잔틴 교회에서 발생한 성상파괴(iconoclast) 논쟁의 시대적 배경과 논쟁의 원인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비잔틴 교회사를 다룬 논문이 4편에 불과한 것은 우선 이 분야 전문가가 국내에 거의 없는 사정이 일차적 요인일 것이다.<sup>6)</sup> 위의 논문들에 포함되지 않은 비잔틴 신학에서 중요한 전례신학, 이콘 신학 그리고 성만찬적 교회론 등이 깊이 있게 연구된다면, 라틴전통을 따르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학과 예배와 예술적 차원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8. 종교개혁의 선구자와 종교개혁자들의 원천 연구

1	11 (2002/6)	이은선	「루돌프 아그리콜라의 <변증론 발견문> 연구」
2	15 (2004/12)	이은선	「윌리엄 오캄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규정된 능력」
3	19 (2006/12)	이은선	「피터 롬바르드의 신학방법론」
4	22 (2008/6)	최종원	「위클리프와 옥스퍼드의 롤라드파: 그 지적 정체성 (1377-1415)」

이 분야를 연구한 논문은 모두 4편이다. 최종원의 글은 위클리프와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옥스퍼드 대학 추종자들(옥스퍼드 롤라드파)의 지적 정체성을 다룬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자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1380년 시작된 교회개혁운동으로서 대학에서 시작하여 대중에게로 확산되어 아카데미와 대중이 결합한 유일한 운동이라 평가” 받는 롤라드 운동에서 대학 내의 지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은 중세대학의 학문의 자유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세 편은 이은선의 연구이다. 먼저 「루돌프 아그리콜라의 『변증

6) 그러나 동방정교회 신학과 관련하여 논문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19권의 번역서를 출판한 박노양의 연구는 비잔틴 전통 연구에 중요한 자산이다. riss4u에서 상세검색란을 클릭한 후, 저자 박노양을 쓰고, 단행본 검색을 하면 그의 역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론 발견론』 연구」는 칼뱅의 사상에서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 그 원천을 추적하다가 에라스무스 이전 인문주의자인 루돌프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 1444-1485)의 『변증론 발견론』(*De inventione dialectica*)을 발견하고 연구한 논문이다. 『변증론 발견론』은 제목이 암시하듯 스콜라 변증론과 인문주의의 수사학을 종합한 책이다. 중세 스콜라학문과 인문주의를 종합하여 종교개혁자들과의 연속성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멜랑히톤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칼뱅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논문은 밝힌다. 아그리콜라의 라틴어 원전과 해외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수용한 것이 돋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우리말 번역본을 참고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은선의 「윌리엄 오캄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규정된 능력」은 오캄주의, 즉 ‘새 길’(via moderna)의 특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두 능력<sup>7)</sup>의 구별이 오캄의 신학에서 신의 속성, 구원론, 예정론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은선의 「피터 롬바르드의 신학방법론」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중요한 신학교재로 사용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c.1096-1160)<sup>8)</sup>의 『명제집』의 우수성, 구조, 원천, 구성 원리, 그리고 권위들을 다루는 방식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명제집』에 대한 탁월한 연구서인 콜리쉬<sup>9)</sup>의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하며 사실상 이 책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다. 『명제집』은 중세신학 연구에도 핵심적인 책이지만,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사상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하는 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7) 두 능력은 ‘potentia ordinata’(올바른 법에 의해 규정된 능력)과 ‘potentia absoluta’(올바른 법을 넘어서서 혹은 반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8) 이은선은 영어식 발음으로 이름을 표기했다.

9) Marcia Colish, *Peter Lombard* (Leiden: E.J.Brill, 1994)

### 9. 기타 주제 연구 현황

1	14 (2004/6)	염창선	「초교파적 관점에서 본 성령의 본질의 기원에 대한 Filioque 논쟁」
2	35 (2013/9)	김선영	「교황수위권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7세와 마르틴 루터의 입장 -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염창선의 논문은 서방교회에서 **filioque**가 첨가된 배경이 단순히 신학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정치사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현대 에큐메니칼 맥락에서 가지는 함의를 서술한다. 이 논문은 11세기 논쟁도 다루지만 중세에 국한된 연구는 아니다. 김선영의 논문은 그레고리우스 7세와 루터의 개혁을 비교한 오말리 연구를 참고하여 두 인물의 교황수위권 이해를 비교하고 루터의 특징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V. 나가는 말: 결산과 전망

1992년 첫 논문이 발표된 이후 10년간의 공백 기간을 지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 34편의 내용을 두루 살펴본 소감을 먼저 밝히고 싶다. 우선 국내에서 황무지와 같았던 서양 중세교회사 연구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한 연구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낳은 자식 가운데 조산아들도 있었다는 점도 향후 발전을 위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연구 조건에서 불가피했을 수 있겠지만 심사자와 편집인들의 수고를 통해 인큐베이터에서 조금 더 배양된 후에 세

상에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예는 여러 논문에서 발견된 적지 않은 라틴어 번역 문제였다. 사소한 자구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사료 파악에 토대를 두지 않은 연구는 기초 없는 탑과 같다. 더욱이 이 문제는 학회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결산과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으로는 국내 중세교회사 연구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일반사학계의 역사서술을 참고하면 쉽게 드러난다.<sup>10)</sup> 그리고 국내에서 일반사학계의 서양 중세사 연구사와 서양 중세교회사 연구사를 비교하면, 교회사 연구사가 거의 30년 이상 늦게 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이는 향후 연구에서 양쪽 연구자들의 상호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34편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주제 분류에서도 드러나듯이, 스콜라 신학자 가운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로 연구되었고, 오캄에 관한 연구가 1편 있는 정도다. 앞으로 안셀무스, 아벨라르, 대(大) 알베르투스, 보나벤투라, 스코투스과 같은 중세의 다양한 신학자들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중세에 꽃핀 다양한 신비주의 흐름에 대해 해외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특히 중세의 다양한 여성 신비가들의 글들에 대해 젠더와 몸의 관점에서 접근하

10) 2011년-2012년 2년간의 서양 중세사 논문 통계 분석에서 교회사 관련 논문이 12%에 해당하는 15편이 발표되었고 신학과 철학이 16%에 해당하는 20편이 있었다. 이 수치는 『한국교회사학회지』에 17년간 게재된 논문 편수를 능가한다. 더욱이 2008년 이후로 국내의 서양 중세사 논문은 매년 60편 이상이 발표되었는데, 신학, 철학, 지성사가 가장 많은 연구결과를 산출했다. 이는 중세사 사료 접근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 통계 자료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장준철, “새로운 지평의 확대와 연구의 심화: 2011년-2012년 서양중세사 연구”, 『역사학보』 219(2013), 199-231.

11)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강일휴, “서양중세사 연구 반세기-근대 전사에서 탈피”, 『서양사론』 95(2007), 209-241.

는 연구도 해외에서는 많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이충범과 양정호의 연구가 있지만, 더 많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중세교회사 연구에서 제도사나 교회 정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에서는 서양 중세사 사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도 해외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중세교회의 이단 문제, 민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즉 유대인과 무슬림과의 관계 등으로 연구자들의 시선이 향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연구 방법론을 보자면, 중세교회사를 종교개혁신학의 관점, 즉 교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사료해석의 편향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넓은 시각, 즉 보편교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 관점의 미덕은 중세교회의 풍부한 영적 유산을 로마가톨릭의 전유물로 여기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론적 문제는 연구자가 원전 연구에만 머물러있거나 아니면 해외 선행 연구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만 머문 경우이다. 장기간 불모지대였던 국내 중세교회사의 연구 조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연구 방향은 철저한 원전 연구와 선행연구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독창적인 연구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독창적 해석을 위해서는 언어 역량과 원전에 대한 우리말 번역작업이 필수적 과제이다.

중세사연구는 다른 분야보다 특별히 국제적 교류, 연구자 간 그리고 학제 간의 적극적 협력이 연구의 미래에 결정적이라고 말해지는 분야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 중세교회사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데 소극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필자의 예를 들면, 한국학

술지인용색인(KCI)을 검색해 보면, 필자의 논문 가운데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철학사상』에 게재된 논문은 17회 인용되었고, 『중세사연구』, 『중세철학』, 『서양고전학연구』 등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5회 이상 인용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인용지수가 훨씬 낮다. 3회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경우다. 물론 교회사학자들이 필자의 연구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쓰지 않아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사학자들 상호 간에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풍토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세교회사 연구의 중요성과 매력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그 안에 풍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전통에 속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신학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2008년 필자가 쓴 「세계중세교회사 연구의 최근 동향」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는데, 지금도 그때에 비해 연구자층이 더 두터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답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중세교회사 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캐낼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더불어, 연구 주제를 보다 매력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 주제어 —

중세교회사연구, 역사서술, 『한국교회사학회지』, 보고서, 전망  
 Research on Medieval Church History, Historiography,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Review, Prospect



## 참고문헌

### 1. 일차문헌: 본고의 분석 대상 논문

- 강치원. “귀고 2세(Guigo II)의 수도승들의 사다리에 나타난 Lectio Divina.” 『한국교회사학회지』 15 (2004. 12), 7-42.
- Id. “성 빅토르의 휴고(Hugo von St. Victor)에게 있어서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Didascalicon de studio legendi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0 (2007. 6), 7-37.
- 권진호. “버나드의 ‘아가서 설교’와 신비주의.” 『한국교회사학회지』 24 (2009. 6), 93-121.
-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15 (2004. 12), 69-99.
- 김선영. “교황수위권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7세와 마르틴 루터의 입장-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35 (2013. 9), 7-40.
- 김수천. “성 시메온(St. Symeon the New Theologian)의 가르침에 나타난 신성의 빛의 의미.” 『한국교회사학회지』 27 (2010. 12), 37-66.
- 김주한. “가난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호정책-중세 후기 기독교 사회복지정책.” 『한국교회사학회지』 21 (2007. 12), 63-94.
- 남성현. “관상기도 전통에 대한 소고.” 『한국교회사학회지』 21 (2007. 12), 95-123.
- 박정흠. “‘이미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8세기 성화상 논쟁의 발단원인 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47 (2017. 8), 321-353.
- 서원모. “스웨덴의 비르기타-자의식과 교황에 대한 계시.” 『한국교회사학회지』 20 (2007. 6), 123-156.
- Id.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대응: 이슬람 문명권 비잔티움, 라틴 그리스도교 세계의 비교.” 『한국교회사학회지』 45 (2016. 12), 7-67.

- Id. “헤지카즘 논쟁에 있어서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 해석.” 『한국교회사학회지』 13 (2003. 12), 221-250.
- 서중원. “위그 드 생-빅토르의 『노아 방주』에 나타난 영적 상승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한국교회사학회지』 28 (2011. 5), 115-164.
- 손은실.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토마스 아퀴나스, 성 루이 9세,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35 (2013. 9), 105-131.
- Id. “중세시대의 복음주의-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5 (2009. 12), 61-91.
- Id.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2 (2015. 12), 7-36.
- 염창선. “초교파적 관점에서 본 성령의 본질의 기원에 대한 Filioque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14 (2004. 6), 121-154.
- 유지황. “신학적 철학인가 철학적 신학인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관계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8 (2006. 6), 127-160.
- Id. “이성과 계시 합일의 도덕: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 개념에 관한 비판적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11 (2002. 6), 150-177.
- Id. “인식과 자유 선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17 (2005. 12), 135-165.
- 이양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론.” 『한국교회사학회지』 5 (1992. 6), 79-103.
- 이은선. “루돌프 아그리콜라의 <변증론 발견론> 연구, (Rudolf Agricola, 1444-1485) 에라스무스 이전 인문주의자.” 『한국교회사학회지』 11 (2002. 6), 216-242.
- Id. “윌리엄 오캄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규정된 능력.” 『한국교회사학회지』 15 (2004. 12), 177-199.
- Id.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의 방법론.” 『한국교회사학회지』 23 (2008. 12), 135-170.
- Id. “피터 롬바르드의 신학방법론.” 『한국교회사학회지』 19 (2006. 12), 1-20.
- 이은재. “중세의 자연이해와 수도원 영성-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10. 6), 69-100.

- 이정구. “8세기 성화상 논쟁의 시대적 요인.” 『한국교회사학회지』 27 (2010. 12), 67-91.
- 이준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설교들의 중심 주제로서 ‘영혼 안에 하느님의 탄생(Gottesgeburt in der Seele)’: 영원한 탄생(Ewige Geburt)’에 관한 설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5 (2009. 12), 93-120.
- Id. “삶의 스승과 실천적인 신비주의자로서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관상하는 삶(Vita contemplativa)과 행동하는 삶의 일치성(Vita activa)’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7 (2010. 12), 93-125.
- Id. “클레르보 드 베르나르(Bernhardus de Clairvaux)의 신비 사상 이해를 위한 한 시도-contemplativa vita et activa vita의 상호성.” 『한국교회사학회지』 36 (2013. 12), 145-175.
- 이충범. “13세기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종교적 주체에 관한 고찰: Mechthild von Magdeburg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9 (2006. 12), 275-305.
- Id. “베긴(Beguine) 여성들과 그 공동체가 수행한 전쟁지도 작법에 관하여.” 『한국교회사학회지』 21 (2007. 12), 265-293.
- 최중원. “위클리프와 옥스퍼드의 롤라드파: 그 지적 정체성(1377-1415).” 『한국교회사학회지』 22 (2008. 6), 1-19.
- 황정욱. “중세 초기의 십일조와 가난한 자의 문제.” 『한국교회사학회지』 24 (2009. 6), 323-366.

## 2. 이차문헌

- 강일휴. “서양중세사 연구 반세기-근대 전사에서 탈피.” 『서양사론』 95 (2007), 209-241.
- 손은실. “세계 중세교회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교회사학』 7/1 (2008), 27-35.
- 장준철. “새로운 지평의 확대와 연구의 심화: 2011년~2012년 서양중세사 연구.” 『역사학보』 219 (2013), 199-231.

## 부 록

연번	권(발간년.월)	저자	논문제목
1	5 (1992. 6)	이양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론」
2	11 (2002. 6)	유지황	「이성과 계시 합일의 도덕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 개념에 관한 비판적 이해」
3	11 (2002.6)	이은선	「루돌프 아그리콜라의 <변증론 발견론> 연구, (Rudolf Agricola, 1444-1485) 에라스무스 이전 인문주의자
4	13 (2003. 12)	서원모	「헤지카즘 논쟁에 있어서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 해석」
5	14 (2004. 6)	염창선	「초교파적 관점에서 본 성령의 본질의 기원에 대한 Filioque 논쟁」
6	15 (2004. 12)	강치원	「귀고 2세(Guigo II)의 수도승들의 사다리에 나타난 Lectio Divina」
7	15 (2004. 12)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에 관한 연구」
8	15 (2004. 12)	이은선	「윌리엄 오캄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규정된 능력」
9	17 (2005. 12)	유지황	「인식과 자유 선택: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
10	18 (2006. 6)	유지황	「신학적 철학인가 철학적 신학인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관계 이해를 중심으로」
11	19 (2006. 12)	이은선	「피터 롬바르드의 신학방법론」
12	19 (2006. 12)	이충범	「13세기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종교적 주체에 관한 고찰: Mechthild von Magdeburg를 중심으로」
13	20 (2007. 6)	강치원	「성 빅토르의 휴고(Hugo von St. Victor)에게 있어서 기록한 독서(Lectio Divina)-Didascalicon de studio legendi를 중심으로」
14	20 (2007. 6)	서원모	「스웨덴의 비르기타-자의식과 교황에 대한 계시」
15	21 (2007. 12)	김주한	「가난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호정책-중세 후기 기독교 사회복지정책」
16	21 (2007. 12)	남성현	「관상기도 전통에 대한 소고」
17	21 (2007. 12)	이충범	「베긴(Beguine) 여성들과 그 공동체가 수행한 전쟁 지도 작법에 관하여」
18	22 (2008. 6)	최종원	「위클리프와 옥스퍼드의 롤라드파:그 지적 정체성(1377-1415)」

연번	권(발간년.월)	저자	논문제목
19	23 (2008. 12)	이은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의 방법론」
20	24 (2009. 6)	권진호	「버나드의 ‘아가서 설교’와 신비주의」
21	24 (2009. 6)	황정욱	「중세 초기의 십일조와 가난한 자의 문제」
22	25 (2009. 12)	손은실	「중세시대의 복음주의-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23	25 (2009. 12)	이준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설교들의 중심 주제로서 ‘영혼 안에 하느님의 탄생(Gottesgeburt in der Seele)’ : 영원한 탄생(Ewige Geburt)’에 관한 설교들을 중심으로」
24	26 (2010. 6)	이은재	「중세의 자연이해와 수도원 영성 -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25	27 (2010. 12)	김수천	「성 시메온(St. Symeon the New Theologian)의 가르침에 나타난 신성의 빛의 의미」
26	27 (2010. 12)	이정구	「8세기 성화상 논쟁의 시대적 요인」
27	27 (2010.12)	이준섭	「삶의 스승과 실천적인 신비주의자로서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관상하는삶(Vita contemplativa)과 행동하는 삶의 일치성(Vita activa)’을 중심으로」
28	28 (2011. 5)	서종원	「위그 드 생-빅토르의 『노아 방주』에 나타난 영적 상승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
29	35 (2013. 9)	김선영	「교황수위권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7세와 마르틴 루터의 입장 -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30	35 (2013. 9)	손은실	「서양 중세교회의 장애인 인식 - 토마스 아퀴나스, 성 루이 9세, 여성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31	36 (2013. 12)	이준섭	「클레르보 드 베르나르(Bernhardus de Clairvaux)의 신비 사상 이해를 위한 한 시도 - contemplativa vita et activa vita의 상호성」
32	42 (2015. 12)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33	45 (2016. 12)	서원보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대응: 이슬람 문명권, 비잔티움, 라틴 그리스도교 세계의 비교」
34	47 (2017. 8)	박정흠	「‘이미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8세기 성화상 논쟁의 발달원인 고찰」

**Abstract**

Review and Prospect of the Articles on the Medieval Church Histor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1979-2019)

Son, Eunsil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rticles on medieval church histor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Society* during 40 years (1979-2019), and to forecast future research issues and directions. In this paper, the medieval church history covers that of church from 500 to 1500, commonly referred to as the "medieval millenniu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indicators and the trends of 34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are as follows: The quality of papers published by courageous challengers in the field of Western medieval research, which was like a wasteland in Korea, under tough research conditions such as knowledge of Latin and data access difficulties, have been gradually developed with the strengthening of domestic research capacity. However, the subjects covered in the 34 papers analyzed in this paper were very narrow in light of the rich and varied themes of medieval church history, and show an urgent need to expand the researchers and the research horizon.

## 국문초록

# 『한국교회사학회지』(1979년~2019년)에 게재된 중세교회사 연구의 결산과 전망

손은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 글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중세교회사 연구 40년사를 결산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 시도이다. 본고에서 중세교회사 범위에 포함시킨 연대는 통상적으로 ‘중세 천년’이라 일컬어지는 500년에서 1500년대이다. 학회지에 발표된 이 시기에 관한 논문 34편을 대상으로 양적 지표와 주제별 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황무지와 같았던 서양 중세 연구 분야에 용기 있게 도전한 연구자들이 라틴어와 자료접근의 어려움과 같은 열악한 연구 조건을 딛고 발표한 논문의 질은 그동안 국내 연구역량의 강화와 함께 점차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34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다양하고 풍부한 중세교회사 주제에 비춰볼 때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연구자층과 연구 지평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접 수 일 (2020년 02월 28일)

수 정 일 (2020년 03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4월 05일)